

간호대학생들의 부모 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분화의 조절효과

신소홍*

¹경북과학대학 간호학과

Influence from the academic stress by the achievement pressure of their parents and adjustment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So-Hong Shin*

¹Department of Nursing, Kyoungbuk science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 자기분화가 이들 간에 조절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경북지역 소재 2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2학년 257명이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4년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성적에 맞추거나 주위의 권유일 경우와 학교생활이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상관관계에서 성취압력은 가족투사와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성을, 가족퇴행은 학업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부모의 성취압력($\beta=.111$, $p<0.05$)은 학업스트레스와 유의미하며,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분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저학년이며, 높은 가족투사, 가족퇴행현상으로 인해 기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비록 조절효과가 기각되었지만 대학생들이 가족들과 적절한 분화가 되었을 때 자기분화가 독립적인 개체로서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influence from academic stress caused by the achievement pressure of their parents and the adjustment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57 students from the 19th of May, 2014 to the 30th of May, 2014 for freshmen and sophomores of a college in the Kyoungbook region to validate the study. The SPSS/PC 18.0 program wa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more less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caused by the achievement pressure($\beta=.111$, $p<0.05$) of their parents but there was no reasonable value in validating the adjustment effect to reduce the academic stress by self-differentiation, i.e., it should be a non-linear and complex effect rather than a simple linear relationship for self-differentiation.

Key Words : Academic Stress, Achievement pressure, Nursing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부모들이 자녀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면서 자녀

들이 자의를 억압당하고 타의에 의한 학과를 선택하거나, 장래 진로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공과목을 선택한다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 질 것이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교과과정과 학업부담이 과

*Corresponding Author : So-Hong Shin(Kyoungbuk science college.)

Tel: +82-54-979-9531 email: ssh646754@nate.com

Received October 20, 2014

Revised November 5, 2014

Accepted November 6, 2014

중하고[1], 학기 중에 강의와 실습을 함께 이수하여야 하므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학업에 대한 압박감의 강도는 타 학과 학생보다 크므로[2], 스트레스 노출의 가능성은 훨씬 높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성취압력이 가중된다면 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배가될 것이며, 국가고시 통과라는 압박 또한 이들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이므로 이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겪는 학업스트레스의 주요 원천 중의 하나가 부모의 성취압력이라 하여[3],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예방하고 당면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긴장,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4], 과도한 스트레스는 자칫 학업에 대한 포기과 우울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족, 학교, 사회가 함께 해결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공동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된다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손실로 이어져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대학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며[5], 우울과 생활스트레스는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6],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상당한 위협에 처하게 되므로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연구자들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미미하였다. 특히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간호대학생들에게 방안 제시는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전무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Lee & Cho[7]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 및 가정생활 특성이나 학교생활 특성 외에도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연구는 다방면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주어져지며, 이는 연구자들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당면 시 해야 할 의무이기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성취압력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또한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이 대학생활 초기단계부

터 정립된다면 남은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매우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업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에게 존재할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해소와 관련된 정보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 자기분화가 조절효과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조절변수로서 자기분화가 역할을 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차이를 비교한다.
- 2) 부모의 성취압력, 자기분화, 학업스트레스 간의 상관성을 파악한다.
- 3)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4) 부모의 성취압력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를 자기분화가 조절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경북지역에 소재한 간호대학 2곳을 편의 선정하여 1,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에 동의한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 257명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부모성취압력, 학업스트레스, 자기분화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와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성취압력

부모의 성취압력 측정도구는 Kang[8]이 부모성취압력에 관한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단일변인 15개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ang[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로 나타났다.

2.3.2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측정도구는 Schaufeli 등[9]에 의해서 개발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 -student survey)척도를 Bae[10]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5 문항으로 정서소진 5문항, 냉소주의 4문항, 효능감 감소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Bae[10]의 연구에서는 정서소진이 Cronbach’s α .881, 냉소주의 Cronbach’s α .931, 효능감 감소 Cronbach’s α .858이며, 본 연구에서는 정서소진이 Cronbach’s α .869, 냉소주의 Cronbach’s α .878, 효능감 감소 Cronbach’s α .777로 나타났다.

2.3.3 자기분화

자기분화 척정도구는 Bowen[11]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Je[12]의 자기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6문항으로 정서인지분화 7문항, 자아의 통합 6문항, 가족투사 6문항, 정서적 단절 6문항, 가족퇴행 1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항상 그렇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e[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00이며,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지분화가 Cronbach’s α .791, 자아의 통합 Cronbach’s α .783, 가족투사 Cronbach’s α .855, 정서적 단절 Cronbach’s α .772, 가족퇴행 Cronbach’s α .892로 나타났다.

2.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4년 5월 19일부터 5월 30일 까지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직접 설명하고 동의한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2.4 자료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목적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 1) 이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 4)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5) 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기분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서, 여학생(83.7%)이 남학생(16.3%)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학년에서는 1학년(51.8%)과 2학년(48.2%)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주관적인 성격은 보통성향(40.1%), 외향적 성향(32.7%), 내향적 성향(27.2%)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취업이 용이해서(52.5%)가 과반을 넘었으며, 성적을 고려하여 지원한 동기(2.3%)는 매우 낮은 분포를 보여 원활한 취업을 위해 간호학과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이상 수준(84.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학과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보통이상(94.5%)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각된 성격은 중하위권 이하(59.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진로는 대학병원 간호사(61.1%)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Spec.	Respondents (N=257)	%
Gender	M	42	16.3
	F	215	83.7
Grade	1	133	51.8
	2	124	48.2
character	Outgoing	84	32.7
	Introverted	70	27.2
	Medium	103	40.1
Selection motives of nursing	Employment after graduation	135	52.5
	public spirit	45	17.5
	Fit to school grades	6	2.3
	Encouraged around	36	14.0
	etc.	35	13.6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Very Dissatisfaction	6	2.3
	Dissatisfaction	35	13.6
	Moderate satisfaction	149	58.0
	Very satisfaction	63	24.5
Nursing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4	1.6
	Dissatisfaction	10	3.9
	Moderate satisfaction	128	49.7
	Very satisfaction	96	37.4
Academic achievement	High	17	6.6
	Medium-high	88	34.2
	Medium-Low	126	49.0
	Low	26	10.1
Hope career after graduation	University Hospitals	157	61.1
	General Hospital	47	18.3
	Health teachers	4	1.6
	Public health officials,	22	8.6
	Course entrance pendency or etc.	2	.8
		25	9.7

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Table 2와 같으며, 학년, 성격($F=8.217, p<0.001$) 그리고 간호학과 선택 동기($F=4.271, p<0.01$),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F=11.751, p<0.001$)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F=13.808, p<0.001$), 스스로 인지하는 학업성적($F=10.878, p<0.001$), 졸업 후 진출하게 될 희망진로($F=3.91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학년에서 1학년은 냉소주의와 효능감 감소에서, 2학년은 정서소진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가 높았다. 성격에서는 외향적일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았다. 간호학

과 선택 동기가 성적을 고려하거나 부모님 등 주위의 권유일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봉사정신이나 취업이 용이해서인 경우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과 전공과목에 대하여 만족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았다. 졸업 후 희망진로가 무엇이나에 따라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약하면, 간호대학생들은 학업과 관련하여 다방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생활이나 전공만족도에 불만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3.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성취압력과 자기분화, 학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부모성취압력과 자기분화와의 상관성에서 성취압력은 자기분화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인지분화($r=.188, p<0.01$)와 자아의 통합($r=.227, p<0.01$), 가족투사($r=.389, p<0.01$), 그리고 정서적 단절($r=.257, p<0.01$)과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그리고 성취압력은 학업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냉소주의($r=.188, p<0.01$), 효능감 감소($r=.125, p<0.05$)와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자기분화와 학업스트레스와의 상관성에서 먼저, 자기분화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인지분화는 학업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정소소진($r=.292, p<0.01$)과 냉소주의($r=.295, p<0.01$), 그리고 효능감 감소($r=.160, p<0.05$)와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으며, 자아의 통합은 정서소진($r=.196, p<0.01$), 냉소주의($r=.154, p<0.05$), 효능감 감소($r=.203, p<0.01$)와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가족투사는 정서소진($r=.193, p<0.01$), 냉소주의($r=.289, p<0.01$), 효능감

감소($r=.268, p<0.01$)와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으며, 정서적 단절은 냉소주의($r=.246, p<0.01$)와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가족퇴행은 정서소진($r=-.149, p<0.01$), 냉소주의($r=-.169, p<0.01$), 효능감 감소($r=-.189, p<0.01$)와 부(-)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이를 요약하면,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스트레스와 자기분화에 정(+)적인 상관성이 있으며, 자기분화의 하위변인 대부분이 학업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그러나 자기분화의 하위변인 가족퇴행은 학업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Table 2] Academic stress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pec.	Emotional Exhaustion	Cynicism	Reduced Personal Efficacy	Total
Gender	M	2.94	2.46	2.64	2.69
	F	3.21	2.31	2.70	2.77
	t	3.772	.933	.304	.597
Grade	1	3.02	2.45	2.77	2.77
	2	3.33	2.22	2.60	2.74
	t	9.324**	4.898*	5.415*	.043
character	Outgoing	2.92	2.25	2.49	2.57
	Introverted	3.22	2.29	2.71	2.77
	Medium	3.33	2.44	2.83	2.90
	F	6.150**	1.338	8.920***	8.217***
Selection motives of nursing	Employment after graduation	3.20	3.24	2.66	2.75
	public spirit	3.01	2.49	2.70	2.75
	Fit to school grades	3.83	3.13	2.75	3.21
	Encouraged around	3.55	2.42	2.81	2.95
	etc.	2.71	1.99	2.64	2.49
	F	6.695***	3.265*	.536	4.271**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Very Dissatisfaction	4.10	2.54	3.61	3.49
	Dissatisfaction	3.33	2.64	2.86	2.96
	Moderate	3.26	2.42	2.73	2.83
	satisfaction	2.81	1.98	2.42	2.43
	Very satisfaction	2.50	2.25	2.25	2.33
	F	7.002***	4.499**	10.282***	11.751***
Nursing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3.80	2.38	3.33	3.23
	Dissatisfaction	3.26	2.73	3.16	3.08
	Moderate	3.29	2.54	2.83	2.91
	satisfaction	3.11	2.19	2.52	2.63
	Very satisfaction	2.47	1.58	2.15	2.11
	F	5.125**	7.405***	13.639***	13.808***
Academic achievement	High	3.29	2.22	2.21	2.57
	Medium-high	3.03	2.18	2.56	2.62
	Medium-Low	3.14	2.35	2.74	2.77
	Low	3.67	2.93	3.17	3.27
	F	4.395**	5.573**	13.535***	10.878***
	Hope career after graduation	University Hospitals	3.09	2.21	2.59
General Hospital		3.33	2.77	2.97	3.04
Health teachers		3.50	2.06	2.46	2.70
Public health officials,		3.11	2.23	2.73	2.72
Course entrance		3.00	2.25	2.33	2.53
pendency or etc.		3.34	2.50	2.79	2.90
F		.998	3.591**	3.823**	3.917**

***: p<0.001, **: p<0.01, *: p<0.05

[Table 3] Correlation for major variables each other

Spec.	Achievement pressure	self-differentiation					Academic Stress			
		1	2	3	4	5	6	7	8	
Achievement pressure		1								
self-differentiation	1	.188**	1							
	2	.227**	.269**	1						
	3	.389**	.378**	.278**	1					
	4	.257**	.317**	.171**	.445**	1				
	5	-.112	-.296**	.020	-.168**	-.347**	1			
Academic Stress	6	.121	.292**	.196**	.193**	.105	-.149*	1		
	7	.189**	.295**	.154*	.289**	.246**	-.168**	.463**	1	
	8	.126*	.160*	.203**	.268**	.100	-.189**	.286**	.395**	1

1: Recognition-emotion function, 2: Self unity, 3: family projection, 4: emotional cutoff, 5: family regression 6: Emotional Exhaustion, 7: Cynicism, 8: Reduced Personal Efficacy

3.4 부모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통제변수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투입하고(모델 1), 다시 독립변수인 성취압력을 추가 투입하여(모델 2)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델의 F검증을 통해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본 결과, 모델 1과 모델 2의 F값이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추정회귀모형이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모델 1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구성된 통제변수가 성취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모델 1의 설명력은 28.9%이고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투입된 변수 중 성격이 외향적일수록, 학교생활 만족도와 간호학과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지각된 성적이 높으면서 희망진로가 대학병원이 종속변수인 학업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 2는, 통제변수에 독립변수인 성취압력을 추가 투입하여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모델 2의 설명력은 30.1%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델 1보다 설명력이 증가(R^2 Change=.012)하였고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통제변수 중 성격, 학교생활 만족도, 간

호학과 만족도, 지각된 성적, 희망진로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성취압력($\beta = .111, p < 0.05$)은 학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5 부모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 간의 자기분화의 조절효과

부모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분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통제변수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독립변수인 성취압력을 투입하고(모델 1), 다시 조절변수인 자기분화를 추가 투입한 다음(모델 2), 독립변수인 성취압력과 조절변수인 자기분화를 곱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모델 3)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델의 F검증을 통해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본 결과, 모델 1과 모델 2, 모델 3의 F값이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추정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모델 1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구성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성취압력을 투입하여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모델 1의 설명력은 30.1%로 나타났다. 투입된 변수들 중 성격, 학교생활

만족도, 간호학과 만족도, 지각된 성적, 희망진로, 성취압력($\beta=.111, p<0.01$)에서 종속변수인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 2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성취압력, 조절변수인 자기분화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모델 2의 설명력은 34.4%로 나타나 모델 1보다 설명력이 증가(R^2 Change=.043)하였고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성격, 학교생활 만족도, 간호학과 만족도, 지각된 성적, 희망진로와 자기분화($\beta=.229, p<0.001$)가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독립변수인 성취압력과 조절변수인 자기분화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동시에 투입하여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모델 3의 설명력은

34.8%로 나타나 모델 2보다 설명력이 소폭 증가(R^2 Change=.004)하였다. 하지만 모델 3에서는 상호작용 항인 성취압력×자기분화($\beta=-.697$)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성취압력의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모델 2와 같이 성격, 학교생활 만족도, 간호학과 만족도, 지각된 성적, 희망진로와 자기분화($\beta=,433, p<0.01$)가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약하면, 독립적으로 부모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분화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취압력과 자기분화 간에는 단순한 선형 관계가 아닌 비선형의 복잡한 효과가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4]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by achievement pressure

Spec.	Model 1			Model 2			
	B	S.E	β	B	S.E	β	
(Constant)	4.108	.162		3.870	.199		
Gender	.006	.084	.004	-.014	.084	-.009	
Grade	-.006	.062	-.006	-.008	.062	-.007	
character	-.192	.066	-.161**	-.173	.066	-.145**	
Control variables	Selection motives of nursing	.073	.061	.065	.070	.061	.063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190	.048	.247***	-.182	.048	-.236***
	Nursing satisfaction	-.159	.047	.214***	-.155	.047	-.208***
	Academic achievement	-.220	.063	.193***	-.212	.063	-.186***
	Hope career after graduation	-.165	.063	.143**	-.174	.063	-.151**
Independent variables	Achievement pressure			.074	.037	.111*	
	R ²		.289			.301	
	Adjusted R ²		.266			.275	
	F(sig.)		12.619***			11.809***	
	R ² Change					.012	

***: $p<0.001$, **: $p<0.01$, *: $p<0.05$

Gender: M=1 F=0, Grade: 1=1, etc=0, character: Outgoing=1, etc=0, Selection motives of nursing: Employment after graduation=1, etc=0,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action=1, Dissatisfaction=0, Nursing satisfaction: satisfaction=1, Dissatisfaction=0, Academic achievement: Medium-high =1, Medium-Low =0, Hope career after graduation: University Hospitals=1, etc=0

[Table 5] The adjustment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in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by achievement pressure

Spec.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B	S.E	β	B	S.E	β	
(Constant)	3.870	.199		2.815	.325		1.736	.988		
Gender	-.014	.084	-.009	-.033	.082	-.022	-.029	.082	-.019	
Grade	-.008	.062	-.007	-.047	.061	-.042	-.042	.061	-.038	
character	-.173	.066	-.145**	-.146	.064	-.113*	-.152	.064	-.127*	
Selection motives of nursing	.070	.061	.063	.082	.059	.073	.073	.059	.065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182	.048	-.236***	-.201	.047	-.261***	-.204	.047	-.265***	
Nursing satisfaction	-.155	.047	-.208***	-.143	.046	-.193**	-.138	.046	-.186**	
Academic achievement	-.212	.063	-.186***	-.196	.061	-.172***	-.200	.061	-.175***	
Hope career after graduation	-.174	.063	-.151**	-.186	.061	-.162**	-.188	.061	-.163**	
Independent variables	Achievement pressure	.074	.037	.111*	.027	.038	.040	.429	.350	.638
moderating variable	self-differentiation			.398	.098	.229***	.753	.322	.433**	
Interaction	Achievement pressure × self-differentiation						-.131	.113	-.697	
	R ²	.301		.344			.348			
	Adjusted R ²	.275		.318			.319			
	F(sig.)	11.809***		12.927***			11.889***			
	R ² Change			.043			.004			

***: p<0.001, **: p<0.01, *: p<0.05

Gender: M=1 F=0, Grade: 1=1, etc=0, character: Outgoing=1, etc=0, Selection motives of nursing: Employment after graduation=1, etc=0,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action=1, Dissatisfaction=0, Nursing satisfaction: satisfaction=1, Dissatisfaction=0, Academic achievement: Medium-high =1, Medium-Low =0, Hope career after graduation: University Hospitals=1, etc=0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부모로부터 받는 성취압력에 따라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기분화를 조절 효과로 하여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차이분석에서 지원동기가 성적을 고려해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상반되게 지원동기에서 성적고려가 가장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데[4], 이는 지역에 따라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전반적인 성적수준이나 합격 상한선 차이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유추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4, 13], 하위 성적일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으며[15], 일반대학생보다 간호대학생이 학업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동기가 뚜렷하게 있는 경우 학업에 대한 불만이 낮아진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도가 낮아지므로[17], 간호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둘째,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부모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성취압력은 학업스트레스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는 여러 연구[3,

18, 19]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부모의 성취 압력은 학업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다.

자기분화와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는 학업스트레스에 대부분 정(+)적인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하위요인 중 가족퇴행은 부(-)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즉, 자기분화와 학업스트레스는 정적(+) 또는 부적(-)으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성취압력과 자기분화 간의 관계에서, 거의 모든 변인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부모성취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기분화는 미진하지만 높아지는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부모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연구[3, 18, 19]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넷째, 자기분화의 조절효과에서, Kim[20]은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ark & Cho[21]는 자기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낮을수록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도가 높았다[22].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분화가 스트레스를 낮추는 영향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자기분화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조절효과 검증을 시도하였다. 검증결과 자기분화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Choi & Kim[23]은 가족투사를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Park & Baik[24]도 가족투사 과정은 스트레스 대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Choi & Kim[25]은 가족퇴행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대학생활을 잘하며, 자아분화 수준은 1학년이 가장 낮고 3학년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취압력과 가족투사가 가장 정(+)적인 상관성을, 가족퇴행은 학업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3가지 요인이 자기분화 조절효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자가 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자기분화 수준이 낮다는 것. 둘째, 성취압력과 가족투사와 가장 정적인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

다는 것. 셋째, 가족퇴행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위 3가지 요인에 의해 자기분화는 조절효과를 갖지 못하고 각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Park & Baik[24]은 자기분화는 가족으로부터 적절히 분화되었을 때 자발적이며 독립적인 개체로서 대인관계 문제에 직면하며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즉 부모의 높은 성취압력과 같은 개입은 대학생이 적절하게 자기분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분화가 독립적인 개체로서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분화가 필요하며, 특히 저학년의 경우 부모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가 있을 때 자기분화가 독립적 개체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부모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 방안의 요인을 검증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을 선택한 동기가 자의적이지 않거나 학교생활과 전공에 대한 불만이 높을 때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지지, 교우관계, 의사소통 등이 활발하도록 주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간호대학생은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하는 과제가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표성취를 위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부모의 높은 성취압력은 오히려 우울이나 학업포기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지나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기분화를 조절효과로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그러나 자기분화가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을 경우 자기분화 기능이 독립적인 개체로서 자발적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곧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간호대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학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가족과 주변인들의 배려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추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학습과 임상실습을 함께 소화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학업에 열중하므로 항상 정도에 따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지만 자기분화가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자기분화가 독립적인 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적절한 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에 대한 의미가 높다.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부모성취압력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 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5), pp. 2178-2186,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5.2178>
- [2] N. H. Cha, "Learning ability and Stress by Character typ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2), pp. 6257-6264,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2.6257>
- [3] S. Y. Park, Y. S. Chong,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in Relations among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Perceived Academic , Stress and Internalization Problems in Boys and Girl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1), pp.17-32, 2010.
- [4] Y. K. Yang, K. S. Han, M. H. Bae, S. 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2(1), pp.23-33, 2014.
- [5] D. S. Park,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of Health College Students on Their Suicidal Ideation : Control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2), pp. 728-736,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2.728>
- [6] H. O. Jeon, "Comparison of Depression and Life-stress by Value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5), pp. 2148-2155, 20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5.2148>
- [7] M. J. Lee, Y. C. Cho, "Self-Perceived Psychosocial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pp.2828-2838,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828>
- [8] Y. C. Kang,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recognized by the Elementary Pupils, their Academic Self and their Attitude toward it,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 Korea, 2003.
- [9] Schaufeli, W. B., Martinez, I. M., Pinto, A. M., Salanova, M., & Bakker, A. B,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pp.464-481, 2002.
DOI: <http://dx.doi.org/10.1177/0022022102033005003>
- [10] B. H. Bae, "The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n Academic Stress: The Application of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yeonggi-do, 2007.
- [11] Bowen, M.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e, P. M. Jr.(Eds). Family therapy :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 Gardner Press, 1976.
- [12] S. B. Je, "(The)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dysfunctional behavior", PhD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1989.
- [13] M. W. Baek, "The study of stress on academic · job-seeking, somatic symptom and coping methods of nursing students", Korea Higher Voc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3(4), pp. 131-143, 2012.
- [14] N. H. Cha,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and Health Locus of Control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9(2): pp. 177-185, 2013.
DOI: <http://dx.doi.org/10.14370/jewnr.2013.19.2.177>
- [15] E. J. Yoo, S. K. Kim, S. H. Juong, "A Study on Stress of College Life and Self-efficacy on Depression among Students from Beauty-related College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9), pp. 279-287, 2013.
- [16] E. H. Lee, S. J. Park, "Validity and Application of the Life Stress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2), pp. 69-93, 2012.
- [17] S. J. Lee, J. H. Yu,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2(3), pp.589-607, 2008.
- [18] J. H. Oh, "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 in Relations of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and Academic Stress,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ChungNam, Korea, 2013.
- [19] C. A. Choi, "Relationship of perceived praental achievement pressure,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stress in adolescent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10.
- [20] J. N. Kim, "(The) Differences in Stress Coping Behavior regarding Family Stress Recognition and Self Differentiation of Middle-Aged Women,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2013.
- [21] C. O. Park, S. H. Cho,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self-differentiation, parenting-style,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parenting stres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2), pp. 537-559, 2011.
- [22] M. J. Hwang, B. R. Kim,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with Parents, Self-Differentiation,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2), pp. 269-280, 2009.
- [23] Y. S. Choi, H. Y. Kim, "Effects of stress coping in adolescents self-differentiation,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21, pp. 1-17, 2005.
- [24] S. C. Park, K. I. Baik, " The Effects of Univ. Students' Self - Differentiation and Self-Efficacy o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tress Coping Strategy, Korean Buddhist Counselling Association, 3(1), pp. 79-96, 2011.
- [25] M. H. Cho, S. S. Park, "Adjustment to college by Differentiation of self : focused on Seowon university student, Student guidance center Seowon University, 17, pp. 81-95, 1999.

신 소 홍(So-Hong Shin)

[정회원]



- 2011년 2월 :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노인의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노인의료복지학과 박사과정 중
- 2014년 3월 ~ 현재 : 경북과학대학 간호학과 초빙교수

<관심분야>

자연과학, 사회과학